

보도시점 2024. 3. 29.(금) 08:30 배포 2024. 3. 29.(금) 08:30

# '24.2월 전산업 생산(+1.3%) 4개월 연속 증가 등 경기 회복흐름이 더욱 뚜렷해지는 모습

- '24.2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

'24.2월 산업활동을 살펴보면, 생산 측면에서는 건설업( $\Delta 1.9\%$ )이 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( $0.7\%$ ), 광공업( $3.1\%$ ), 공공행정( $1.4\%$ )이 늘어나며 전산업 생산( $1.3\%$ )이 '22.1월 이후 25개월 만에 4개월 연속 증가하였다.

\* 전산업 생산(전월비, %): ('23.6) $\Delta 0.2$  (7) $\Delta 0.7$  (8)1.8 (9)0.8 (10) $\Delta 0.7$  (11) 0.3 (12) 0.4 ('24.1) 0.4 (2) 1.3  
광공업 생산(전월비, %): ('23.6) $\Delta 2.0$  (7) $\Delta 2.6$  (8)5.4 (9)1.9 (10) $\Delta 1.7$  (11) 1.6 (12) $\Delta 0.4$  ('24.1) $\Delta 1.5$  (2) 3.1  
서비스업 생산(전월비, %): ('23.6) 0.8 (7) 0.2 (8)0.4 (9)0.2 (10) $\Delta 0.3$  (11) 0.0 (12) 1.4 ('24.1) $\Delta 0.2$  (2) 0.7  
건설업 생산(전월비, %): ('23.6) $\Delta 1.2$  (7) 0.5 (8)1.6 (9)0.4 (10) $\Delta 0.5$  (11) $\Delta 2.4$  (12) $\Delta 3.6$  ('24.1) 13.8 (2) $\Delta 1.9$

지출 측면에서는 소매판매( $\Delta 3.1\%$ )가 준내구재( $2.4\%$ ) 증가에도 내구재( $\Delta 3.2\%$ ) 및 비내구재( $\Delta 4.8\%$ )가 줄면서 감소하였다. 설비투자는 기계류( $6.0\%$ )와 운송장비( $23.8\%$ )가 모두 늘면서 큰 폭으로 증가( $10.3\%$ )하였고, 건설투자는 토목( $\Delta 2.2\%$ )과 건축( $\Delta 1.8\%$ )이 모두 조정되며 소폭 감소( $\Delta 1.9\%$ )하였다.

\* 소매판매(전월비, %): ('23.6) 1.6 (7) $\Delta 3.1$  (8)0.5 (9) $\Delta 1.0$  (10) 0.8 (11) $\Delta 0.1$  (12) 0.5 ('24.1) 1.0 (2) $\Delta 3.1$   
설비투자(전월비, %): ('23.6) 0.7 (7) $\Delta 8.6$  (8)3.9 (9) 6.8 (10) $\Delta 1.9$  (11) $\Delta 2.0$  (12) 2.3 ('24.1) $\Delta 5.9$  (2) 10.3  
건설투자(전월비, %): ('23.6) $\Delta 1.2$  (7) 0.5 (8)1.6 (9) 0.4 (10) $\Delta 0.5$  (11) $\Delta 2.4$  (12) $\Delta 3.6$  ('24.1) 13.8 (2) $\Delta 1.9$

'24.2월 산업활동은 전산업 생산이 견조한 증가 흐름을 보이며 연초 양호한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있다. 특히, 반도체 개선흐름에 더해 여타 제조업종으로 회복세가 확산되며 광공업이 큰 폭 증가하였고,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'22.7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제조업 생산·수출 중심 경기 회복흐름이 더욱 뚜렷해지는 모습이다.

내수의 경우, 소매판매·서비스업생산의 전체적인 흐름은 '23.4분기 이후 차츰 회복되는 조짐이 관측된다. 다만, 2월 소매판매의 경우, 2개월 연속 상승 후 조정 효과와 설 연휴 소비감소 경향, 전기차보조금 미지급 등으로 일시 주춤한 모습이다.

한편, 투자는 연초 건설투자가 선방하고 있는 가운데, 설비투자도 2월 개선되는 등 온기 확산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.

정부는 우리 경제가 “균형잡히고 체감되는 성장”의 본궤도에 조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역대 최고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과 함께 기업·지역·건설 3대 분야 집중 투자지원, 취약부문 금융지원 등을 통한 내수부문 적기 보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	김귀범 (044-215-2730)
			사무관	최문성 (044-215-2731)
			사무관	박철희 (044-215-2732)
			사무관	성지현 (044-215-2735)



## 1. 주요 내용

### 1 [생산] 반도체가 개선을 견인하는 가운데, 여타업종으로 회복세 확산

- ① (광공업)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개선에 더해 자동차 등 다수 업종 생산이 증가하며 플러스 전환('24.1월: △1.5 → 2월: 3.1%)

▶ <반도체> 생산이 증가하고 출하가 큰 폭으로 늘며 재고는 감소 전환

\* 생산(전월비, %) ('23.6)△0.5 (7)△4.0 (8)16.5 (9) 11.8 (10)△10.5 (11) 9.8 (12) 3.6 ('24.1)△8.2 (2)48  
출하(전월비, %) ('23.6) 36.7 (7)△28.8 (8)7.1 (9) 34.0 (10)△23.3 (11) 7.6 (12) 33.2 ('24.1)△32.3 (2)79  
재고(전월비, %) ('23.6)△11.3 (7) 5.7 (8)13.8 (9)△7.7 (10)△9.8 (11)△1.9 (12)△20.9 ('24.1) 21 (2)△31

- 재고/출하비율은 출하(2.6%)와 재고(1.4%) 모두 증가했으나, 출하 증가가 더 크게 나타나며 전월 대비 감소(△1.4%p)

\* 재고/출하비율(%): ('23.7)119.4 (8)118.8 (9)111.5 (10)115.0 (11)112.5 (12)104.1 ('24.1)111.5 (2)110.1

- 제조업 평균가동률(74.6%)은 개선(2.5%p)되며 '22.7월 이후 최고

\* 제조업 평균가동률(%): ('23.7)70.0 (8)73.3 (9)73.6 (10)72.6 (11)73.0 (12)72.0 ('24.1)72.1 (2)74.6

- ② (서비스업) 숙박·음식(5.0%), 여가(7.4%), 운수·창고(1.6%) 등 대면 서비스업 개선으로 증가('24.1월: △0.2 → 2월: 0.7%)

\* [숙박·음식] 설 연휴 지출 확대, [여가] 기상호조, [운수·창고] 항공 여객 운송 증가

	'22	'23	'231/4	2/4	3/4	4/4	11월	12월	'241월	2월	(업종별 전월비 %)
소산업											
<전기비, %>	-	-	0.1	0.6	1.0	0.7	0.3	0.4	0.4	1.3	(광공업) 3.1 (건설업)△1.9
<전년동기비 %>	4.6	1.0	1.6	△0.3	1.3	1.3	2.2	0.4	7.3	7.3	(서비스업) 0.7 (공공행정) 1.4
광공업											
<전기비, %>	-	-	0.4	2.6	1.3	2.2	1.6	△0.4	△1.5	3.1	(반도체) 4.8 (기계장비)10.3
<전년동기비 %>	1.0	△2.6	△8.3	△6.1	△0.2	5.1	6.1	6.3	12.9	4.8	(통신장비) △10.2 (담배)△6.2
서비스업											
<전기비, %>	-	-	1.0	0.0	1.0	0.3	0.0	1.4	△0.2	0.7	(숙박·음식) 5.0 (여가) 7.4
<전년동기비 %>	7.0	3.1	6.3	2.6	2.3	1.8	2.5	1.2	4.5	1.2	(운수·창고) 1.6 (사업지원)△0.9

### 2 [지출] 소매판매(△3.1%)·건설기성(△1.9%) 감소, 설비투자(10.3%) 증가

- ① (소매 판매) 준내구재(2.4%)는 증가했으나, 내구재(△3.2%) 및 비내구재(△4.8%) 판매가 감소하며 하락('24.1월: 1.0% → 2월: △3.1%)

▶ '24.1 → 2월(전월비, %): (내구재) △0.8 → △3.2 (준내구재) △1.1 → 2.4 (비내구재) 2.4 → △4.8

[내구재] 전기차 판매지연(보조금 3월 본격 지급) 및 전월 기저효과(가전할인·S24출시)로 감소

[준내구재] 평년대비 높은 기온(관측 이래 2월중 최고)으로 간절기 의류판매가 확대되어 증가

[비내구재] 설 연휴기간 음식료품·화장품 매출 감소 등으로 감소

② **(설비투자) 운송장비(23.8%)와 기계류(6.0%)의 동반 개선으로**  
전월 대비 큰 폭 증가('24.1월: △5.9 → 2월: 10.3%)

\* (운송장비) 탱커선박, 주요 항공업체 대형기체 도입 등  
(기계류) 반도체업체 고성능 시설투자(HBM)에 따른 장비도입 확대 등

③ **(건설기성) 건축(△1.8%)·토목(△2.2%) 모두 전월 큰 폭 상승의**  
기저로 감소했으나, 예상 대비 양호('24.1월: 13.8 → 2월: △1.9%)

\* (건축) 반도체 공장 실적 감소 (토목) 전월 큰 폭 늘었던 울산 석유화학 생산시설 실적 감소

		'22	'23	'23.1/4	2/4	3/4	4/4	11월	12월	'24.1월	2월	(업종별 전월비 %)
소매판매	<전기비, %>	-	-	0.6	△0.5	△1.9	0.4	△0.1	0.5	1.0	△3.1	(내구재)△3.2 (준내구재)2.4 (비내구재)△4.8
	<전년동기비 %>	△0.3	△1.5	△0.8	△0.7	△2.7	△1.9	△0.1	△0.7	△3.3	0.9	
설비투자	<전기비, %>	-	-	△8.0	1.0	△3.1	3.1	△2.0	2.3	△5.9	10.3	(기계류) 6.0 (운송장비) 23.8
	<전년동기비 %>	3.3	△5.4	△1.0	△0.9	△10.7	△8.5	△10.8	△5.9	3.8	△0.3	
건설기성	<전기비, %>	-	-	2.8	1.1	1.1	△2.2	△2.4	△3.6	13.8	△1.9	(건축) △1.8 (토목) △2.2
	<전년동기비 %>	2.8	7.4	11.5	8.7	10.1	0.9	2.2	△2.8	18.2	0.5	

③ **[경기 순환변동치] 동행지수(+0.2p)와 선행지수(+0.1p) 모두 상승**

① **(동행지수) 건설기성·서비스업생산 등 증가하며 2개월 연속 상승**

\* 동행지수 순환변동차 ('23.7)100.0 (8)99.8 (9)99.6 (10)99.8 (11)99.7 (12)99.6 ('24.1)99.7 (2)99.9 **<+0.2p>**

② **(선행지수) 재고·기계류내수출하·코스피 등 증가로 상승 전환**

\* 선행지수 순환변동차 ('23.7)99.5 (8)99.5 (9)99.6 (10)99.9 (11)100.1 (12)100.3 ('24.1)100.3 (2)100.4 **<+0.1p>**

## 2. 평가 및 전망

□ '24.2월 산업활동은 전산업 4개월 연속 증가(25개월 만) 등 견조한 개선흐름을 보이며 연초 양호한 경기회복 기대 뒷받침

- 제조업은 반도체 개선세와 함께 여타업종으로 회복세 점차 확산
- 내수는 1~2월 소비가 서비스의 완만한 증가에 힘입어 서비스(55%)·재화(45%) 전체로는 '23.4분기 이후 차츰 회복하는 모습

\* 서비스업<전기비, %> : ('23.2Q)0.0 (3Q)1.0 (4Q)0.3 ('24.1~2)1.1  
소매판매<전기비, %> : ('23.2Q)△0.5 (3Q)△1.9 (4Q)0.4 ('24.1~2)△0.3

- 단, 소매판매는 2개월 연속 상승後 조정·2월 특이요인\* 감안 필요

\* 설 연휴·직후 음식료·화장품 구매 감소, 3월 전기차보조금 본격 지급에 따른 차량구매 지연 등

- 투자는 건설이 1~2월 큰 폭 증가(전기비 9.1%)하며 당초 전망을 상회하였고, 설비는 1월 부진(△5.9%)을 2월 만회(10.3%)

□ 우리 경제는 생산·수출 중심 경기회복 흐름이 뚜렷해지는 가운데, 내수로 온기가 점차 확산되는 조짐. 단, 상하방리스크 상존

- 생산측면에서는 IT업황 반등과 함께 시장內 반도체 빅사이클 기대감 확산, 세계경제 연착륙 전망 등이 긍정적

- 지정학적 불안·공급망 리스크,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은 부담

- 지출측면(소비·투자)에서는 해외發 입국객 증가세, 전기차 보조금 지급 본격화, 신산업 중심 투자확대 계획 등이 상방요인이나,

- 가계부채·부동산PF 리스크와 건설수주 부진 등은 하방요인

### 3. 대응방향

□ 정부는 민생·내수 취약부문으로의 회복세 확산에 총력 대응

- ①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및 기업·지역·건설 3대 분야 투자 지원, 부담금 정비, 취약부문 금융지원 등 통한 체감경기 개선에 역점
- ② 세일즈 외교 성과의 수출·투자·일자리로의 체계적 연계 지원, 기업부담 경감 등 한시 규제유예와 현장애로 발굴·해소 집중
- ③ 부동산PF, 가계부채, 공급망 위험 등 취약부문 잠재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선제적 대응에 만전
- ④ 혁신생태계 조성, 공정한 경쟁 확립, 사회이동성 제고 등 역동경제 구현과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구조개혁 노력 병행